

· 한·미 FTA 발효 9년차 ·

# 수산물 교역 동향





미국은 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국으로 **2012년 3월 15일 한-미 FTA를 체결**하였습니다.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.

- 2020.04.02. 제5차 한·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
- 2019.01.01. 한·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
- 2018.12.07. 한·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
- 2018.03.15.-16. 제3차 한·미 FTA 개정협상 개최 (워싱턴 D.C.)
- 2018.01.31.-02.01. 제2차 한·미 FTA 개정협상 개최 (서울)
- 2018.01.05. 제1차 한·미 FTA 개정협상 개최 (워싱턴 D.C.)
- 2012.03.15. 한·미 FTA 발효

2021년 발효 9년차를 맞은 한·미 FTA는 발효 후 3차에 걸친 개정협상을 통하여 **2019년 1월 1일 개정의정서를 발효**하였습니다. 개정의정서에 양국은 관세, 무역구제, 투자(ISDS) 등 분야의 개정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.

## TRQ 품목



명태(냉동)



민어(냉동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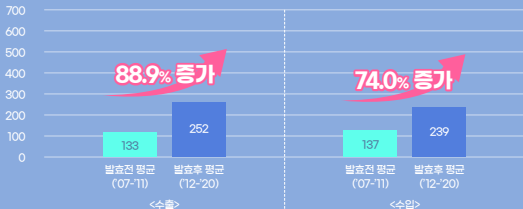
기타넙치(냉동)

한·미 FTA에서 **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품목 모두를 양허하였으나,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 관세 철폐기간 확보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.** 특히 국내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명태(냉동), 민어(냉동), 기타넙치(냉동)는 TRQ 품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.

## 한·미 FTA 발효 전·후 수산물 수출입 동향

(단위 : 백만 달러)

■ 발효전 평균(07~11) ■ 발효후 평균(12~20)



한·미 FTA 이행 9년차인 2020년 기준, 對미국 수산물 교역 규모는 수출액 3억 1천만 달러, 수입액 2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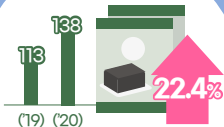
한·미 FTA 발효 이전의 수산물 교역 규모와 비교할 때, 발효 후 수출 88.9%, 수입 74.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## 한·미 FTA 발효 전·후 수산물 수출입 동향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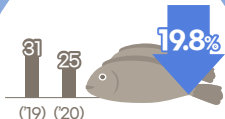
구분	발효 전 평균* (’07~’11)		발효 후 평균* (’12~’20)		증감률 (발효 후/발효 전)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어류	58	103	100	168	71.2	62.1
해조류	32	0	94	0	199.2	70.9
갑각류	7	4	12	27	70.8	536.0
기타	3	24	5	35	86.9	43.9
패류	19	2	22	4	16.4	70.9
연체동물	12	0	15	0	21.2	5.1
기타수생동물	1	2	1	3	17.0	55.2
소금	2	1	3	2	61.2	178.8
<b>전체</b>	<b>133</b>	<b>137</b>	<b>252</b>	<b>239</b>	<b>88.9</b>	<b>74.0</b>

\* 발효 전 평균은 '07~'11년의 5개년 평균값, 발효 후 평균은 '12~'20년의 9개년 평균값



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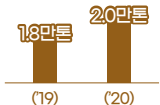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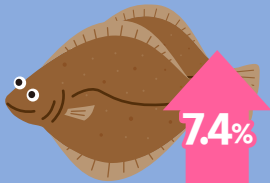
이빨고기

(단위: 백만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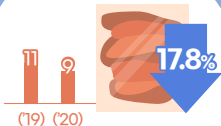
2020년 對미국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5.7% 증가하였습니다. 주요 수출 품목인 김, 기타어류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, 이빨고기, 굴 등은 감소하였습니다.



### 국내 가자미류 생산량



수입의 경우 2020년 對미국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5.3% 감소하였습니다. 어류 수입이 전년 대비 5.0% 감소하였는데, 주요 수입 품목인 **가자미의 경우 국내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.3% 감소**하였습니다.



### 냉동 명란

(단위: 백만 달러)



### 활 바닷가재

(단위: 백만 달러)

또한 기타 수입은 전년 대비 50.4% 감소하였으며,  
**갑각류 수입도 전년 대비 34.6% 감소하였습니다.**



최근 우리나라는 CPTPP, RCEP 등 대규모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하거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**한·미FTA는 이러한 시장개방 가속화 속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.**